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利福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生活의 簡素化
生活의 合理化를 圖하라

一

近者 總督府에서는 學務局이 中心이 되야가지고 現下 長期戰體制下의 國民生活을 簡素化하고 아울러 銃後國民의 精神을 一層 더 緊張시킴으로써 物心兩方面의 總動員을 强調하자는 意味에서 위선 官公吏의 制服製定 削髮等國民線에 따르는生活更新運動을 開始하엿다 그래서 學務局을 爲始하야 京城府及 京畿道學務課에서는 벌써一齊히 削髮을 斷行하야 이運動의 最先鋒이 되얏거니와 이것은 勿論 京城에만 局限될것이 아니고 將次全朝鮮에 波及될것임으로 멀지안은 將來에 우리는 갓곳마다 중머리에 카ㅡ키 服을 입는時局色의 生活樣式을 보게될것이다。

二

元來 사람의 生活이란 簡素를 爲主하여야 할것이다 煩雜한 生活樣式이 經濟的으로 보아 無用의 浪費를 더할뿐아니라 他面 일의 能率까지도 低減한다는것은 吾人이 熟知하는바事實이며 또그와同時에 一個人의 煩繁한生活로 말미아마 一社會 一國家에 影響되는바 큰것도잘 아는바이다 그러므로 生活의簡素가 平時에잇서서도 生活의根本精神이 되여야하겟거든 況且 現時와 가튼 非常時局下에잇서서는 그緊不緊를 論할 餘地조차 업는바로 이번 當局의 生活更新運動은 實로 時宜에 適合한 擧事라할것이다。

三

特히 朝鮮사람에게 잇서서는 이生活의 簡素化思想이란 더욱 緊切한바 잇는것이줄안다 우리는 일즉 긴道袍에 長衎을 물고 살어왓고 繁文縟禮에 사로잡힌채 數世紀를 지내왓다 現代에 일르러서도 우리의 生活은 이傳統과 아주絶緣된것이아니고 여기저기서 그餘影을 發見할수잇는것이니 一例를 들면 레인코ㅡ트가튼것은 元洋服國民인 歐米에서보다도 朝鮮에 더만히 流行되는모양이고 夏節의 白靴도 亦是 그들은 그다지 만히 着用하지안는다는말을 들엇다。이것은 오직 우리의生活의 非合理化한 一例에 끄치거니와이 밖에도 이러한例는 얼마든지 차저낼수잇는것이다 모름직이 우리는 이機會에 우리의生活에合理性이잇고 또緊張味가 잇는가를 깁히 反省하야써 압날의生活을 簡素合理化하는 材料를삼지안호면 안될것이다。

四

以上 現下非常時局下의 國民으로서는 勿論, 平時에 잇서서도生活의 簡素化가 生活의基準이여야하겟다는것을 主張하얏거니와 끄트로 生活更新運動에잇서 그것이形式에 기우러저서는 안된다는것을 注意하지안흐면 안된다 假令 制服과가튼것은 이運動에잇서 效果的인 制度이同時에 一便 그緊審도 업지안흘것이니 現在着用하는 衣服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새로 制服을準備하는것은 도리혀 이運動의精神과 背反되는 結果를 나을念慮도 업지안흘 까닭이다 그럼으로 이運動은 그精神과實質에 重點을둘것이고 形式에 치우처서는 안될것이다。그리고 그와同時에 生活의 簡素化는 合理化를 意味하는것임을 이저서는 안된다 生活의簡易化가 우리의 健康을 害하는 程度에 일온다면 이것도 亦是 所期의 目的에 反하는結果를 가저오게되는것임은 勿論이다 飮食에는 榮養을 생각하고 料理法을 改善하며 住宅과 衣服은 實用을 爲主하여야할것이며 特히 當局에서는 生活의簡易化 合理化를 爲하야 朝鮮사람의 衣食住에 適合한 生活樣式을 考究하야 이運動의 精神을 徹底케하는것도 이運動의 큰도움이될것이라고 생각하는바이다。

我撤退要求에對한 蘇聯側態度難測
軍使는尙今도不還?

【慶興十九日發同盟】 十八日南部滿蘇國境某地로부터 蘇聯側에派遣된朝鮮人軍使二名은 十九日午後一時二十分에이르러도 아직歸還하지안헛는데 蘇聯側態度는 方今判明치안흐나 再昨年長嶺子事件死體引渡時에도 我方으로부터 蘇聯側에流遣된軍使가 歸還까지에 四日을要한點으로보면 느저도 今明日蘇聯兵에게 同行되야 國境線에歸還될것으로 現地에서는 觀測하고잇다 그러나 蘇聯側의回答內容은 應諾일지 拒否일지 極히注目된다

應諾? 拒否?

外相、重光大使에게 嚴重抗議토록訓電

【東京電話同盟】 宇垣外相은 十九日五相會議散會後 板垣陸相으로부터 張鼓峯事件에 關한 現地情勢를 詳細히 聽取하엿는데 陸相의 報告에 基하야 在莫斯科重光大使에게 거듭 訓令을發하엿다 따라 重光大使는 近近으로 모니아곱호 外務人民委員을 訪問嚴重抗議를하는 同時에 事件勃發以前의狀態에 復歸를 要求할것으로보인다

×××××××

重大對策決定次 滿洲外務首腦部會議

【新京十九日發同盟】 十八日夜哈爾賓에서 行한下村、구즈네초프스키ㅡ會談의 詳細한內容은 十九日午前에이르러도 外務局에 到着되지안핫는데 外務當局으로서는 傳하는바와가튼 右會談이 事實上決裂狀態에 빠진것은 蘇聯側의 態度로 보아 當然하다 고 하고잇다 따라 外務局으로서는 再三繼續한 越境蘇聯兵의 即時撤退에依한 原狀回復을求한後 張鼓峰現地의 國境劃定의法的解釋及不明確國境線의 劃定交涉의 用意가잇는旨의 誠意를披瀝함에不拘하고 蘇聯側은 어데까지든지 琿春界約을 방패로依然原狀回復을 拒否하면 滿洲國政府로서는 重大決意를 考慮할必要를 認定하고 十九日 葵長官以下 外務局首腦部參集하야 對策을 硏究中이다

蘇聯의遷延策警戒

【新京十九日發同盟】 十八日夜現地의 我防衛當局과 蘇聯遠東軍司令官과의間에 開始된 現地交涉은 蘇聯側의 應答이 업서드디여 不調되고 말엇는데이에 關하야 當地各關係當局은 現地交涉의 推移에 重大關心을가저各方面과 情報交換을하며 事態의核心을 把握코저 遺憾업기를期하고잇다 이리하야 當地各關係側에서는 從來의 蘇聯의 態度로보아 現地交涉의結果에 만흔期待를 갓지못하고 蘇聯側이屈服하야 原狀回復에 誠意를表示하기까지에는 아직도 相當한迂餘曲折이 잇슬것으로보아 蘇聯側의 常套手段인 事態解決遷延策에關하야 充分히 警戒할必要가잇다고보고잇다

外交官肅正에犧牲 구즈네초프氏도

【哈爾濱十九日發同盟】 駐哈蘇聯總領事代理 구즈네초프氏는 本國召還命令을接하고 十九日午前十時四十分 國際列車로 哈爾濱發 莫府로向하엿다 同氏의身邊에關하야는 目下蘇聯在外使臣을 戰慄케하고잇는 外交官肅正旋風에同氏도 걸엿다는 觀測이有力한데 特히越境問題가 勃發한此際에多大한疑惑으로써보게되엿다

東京蘇聯大使館에 建國會員"坐占戰術"

【東京電話同盟】 張鼓峰事件에憤慨한建國會에서는十九日午前十一時蘇聯同大使館에 赴하야 스미머代理大使에 再三面會를 强要하엿는바 拒絶을 밧고大使館窓口로부터『赤露를 膺懲하라!』라는 삐라를 던지고玄關아페서『坐占戰術』을 取하므로 警戒中의 鳥居坂署員이 달려가서 說諭解散시켯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 十九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四十分首相官邸에서 開會、近衛首相以下全閣僚出席、于先池田藏相으로부터 日

我憲兵又復負傷 蘇聯兵不法射擊으로

【新京十九日發同盟】 最近우스리江上의 滿人漁夫가 蘇聯兵에 금각금 不法拉去되여 오는바 六月二十九日에도 虎林附近우스리江上에서 滿人漁夫가 배채모투 拉致되엿슴으로 虎林憲兵隊의 岩出代治郞 伍長은 滿人憲官 四名과함께 右實地를檢視코저 十八日午后 虎林發 우스리江을 遡江中 突然 또 그라프스카 蘇聯陣地로부터 不法射擊을바다 岩出伍長은 左大腿部에 盲貫銃創을 입한外 滿人憲官의 帽子에 銃彈이마젓는데 一行은 岩出伍長을 부축하야 虎林에 도라오모양이다 我方의 航行權을 阻害할뿐만아니라 不法射擊 不法拉致를 繼續하는 蘇聯側에 對하야 我當局에서는 자못憤慨하야 十九日午后 六時 滿洲國外務當局은 駐哈蘇聯領事館을 通하야 莫斯科政府에 嚴重한 抗議를發하엿다

江蘇省東部의 殘敵掃蕩戰完了

【上海十八日發同盟】 江蘇省東部 揚子江北岸地區에 蠢動하고잇든 殘敵에 對하야 我軍은 去十三日부터 此等의 掃蕩을 開始하야 北方으로부터 急追中이엇는데 十六日田上、足立、川上諸部隊는 敵에게 多大의 損害를與하고 掃蕩戰을 完了하야 敵을 西方에 遁走시켯다 이方面에出沒한敵은 第百十一師乃至第百十四師의 混成이며 兵力約 一個師이엿다

海荒鷲隊 南支爆擊狀況

【上海十九日發同盟】 十九日正午 艦隊報道部發表 十八日午前 南昌飛行場에 木滅의偉功을奏한 我海軍航空隊는 同日繼續하야 江上艦隊와協力, 九江下流獅子山及 新港背面의 敵砲兵陣地를爆擊하야 多大한 損害를與하엿다 南支方面에서는 黃江口飛行場西側工場二棟을 大半燃燒시키고 同工場의 倉庫二個를潰滅시키며 其他廣九線沙林附近線路一個所를 切斷하엿다

潰滅된山西支那軍 敗勢挽回畫策! ○○方面에兵力移動

【石家莊十九日發同盟】 我軍의猛攻에거의 潰滅된 山西省支那軍은이미 集團的存在를 보지못하게되엿는바 敵은敗戰을 挽回코저 西安 方面으로부터 兵力을 ○○方面에 移動시키고 잇는模樣이다 一方我軍은 十九日乘雨로 지옥이무릅까지 빠지는惡路를무릅쓰고 退却하는 敵을急迫하야 到處에서 이를擊退하며 更히○○方面에 前進續行中이다

000181

"日本政府回答에 米國은尙不滿足" 헐國務長官談

【華盛頓十八日發同盟】 헐國務長官은 十八日 新聞記者團과의會見上에서 長江沿岸米國人復歸問題에關한 日本政府의 六日附回答公文은 充分滿足할것이 아니라하야 如左히말하엿다

米國政府는 日本政府의 回答을 滿足한것으로는 생각지는 안는다 따라 이問題는 아직完全히 解決되엿다고 말할수업다 米國의對支權益侵害事件과 이에伴한 對日通牒과를 檢討하면 問題는 아직여러가지點에解決되지안흔것이 남어잇다 懸案의 一部는이미 圓滿히解決되엿스나 또새로운 問題가 일어날可能性이업다고는 말할수업다

그리고 헐長官은 이以上問題에 言及함을 拒絶하엿다

世界厚生會議

【東京電話同盟】 日本 厚生會議理事會는 十九日 午後二時부터 厚生省에서 理事會總會를 열고 協議한結果 昭和十五年 大阪에서 開催키로豫定하엿든 世界厚生會議는 時局에鑑하야 이를中止키로決定하고 그뜻을 各方面에 通知하엿다

豆滿江下流서도 蘇聯不法行爲頻數

當地에 達한 情報에依하면蘇聯部隊가 張鼓峰을 越境하야同地一帶를 占據함에 對한 日滿兩當局의 正當하고도 根據잇는抗議에 對하야 蘇聯側은 前例대로 말을左右로하며 이를 拒絶하야 不誠意한 態度를 表示하고잇는데 그가 主張하는琿春界約에 依하면 圖們으로부터下流에 이르는 國境線은 豆滿江左岸에잇슴에 不拘하고 이를無視하고 自由로 航行하는一方 朝鮮人으로南河의中心으로부터 조금이라도 左岸에近接할時는 이를射擊又는 拉去하는것이 通例로如斯한 蘇聯의無誠意하고도不法한行爲는 國境方面에서는 勿論 어니와 一般의憤慨의的이되여잇다

內閣參議補充 二十日發令

【東京電話同盟】 內閣參議補充은 十九日 大谷前拓相及 松井石根大將으로決定、近衛首相은 同日午後五時宮中에參內하야 天皇陛下께拜謁、御裁可를仰한結果 二十日如左히 發令키로되엿다

從三位勳一等 大谷 尊由
陸軍大將 正三位勳一等功四級 松井 石根
臨時內閣參議被仰付(各通)

六將軍參內

【東京電話同盟】 支那南北兩戰線에 武勳을세우고 今般凱旋한川岸文三郞 牛島貞雄 下元熊彌三中將及 天谷 黑岩 鈴木三少將은 十九日午前十時에 參內 十時半表御座所에서 天皇陛下께 拜謁、陛下께옵서는 懇切하옵시게도 優渥하옵신 御慰勞의聖旨를 賜하옵시고 武勳을御嘉賞하옵섯다고 承詔된다 三中將은 다시內謁見所에서皇后陛下께 拜謁、一同은 賢所에 參拜、正午부터 豐明殿에서 賜宴의 光榮을 입고 三中將에는 勅語와 御紋付銀花瓶一個式下賜되엿다

外、陸相重要會談

【東京電話同盟】 宇垣外相과 板垣陸相은 十九日閣議散會後 別室에서 張鼓峰의 蘇聯兵不法越境事件에 關하야 約三十分間重要會談을 하엿다

定例五相會議

【東京電話同盟】 定例五相會議는 十九日午後二時부터 首相官邸에서開催、近衛首相以下 關係閣僚出席、池田藏相으로부터 正貨準備活用에關하야 報告、宇垣外相으로부터 國際情勢에對하야 各各報告가잇슨後 對支政策의 細目에關한協議를進行하고 三時頃散會하엿다

五相會議散會後 四相協議繼續

【東京電話同盟】 近衛首相、板垣陸相、米內海相은 十九日午後四時二十分 五相會議散會後 繼續協議하엿다

正貨準備의現送 意義잇게活用하라
結城日本銀行總裁談

【東京電話同盟】 日銀의 正貨準備活用에關하야 結城日銀總裁는 十九日 如左히말하엿다

事變의 長期化에伴하야軍需資材의 輸入確保가 先決問題로되엿다 現在日本의 國際收支決濟力은 輸出振興을爲하지안흐면안되므로 輸出原料輸入資金供給을 爲하야 必要가잇다 이點으로 物資動員計畫의 一部로서 正貨準備動員이必要케되엿것이다 그리하야今番現送分三億圓을 日銀正貨準備로부터 國庫에게되엿는데從來의例로보면 在外正貨로서準備中에 넉넉우기도 可能하다 그러나 余는 通貨의信用을維持하는 見地에서 日銀의金庫에잇는것만이 發行準備가될수잇다고생각함으로 斷然 正貨準備로부터切離하야 外國貿易基金으로서 活用키로된것이다 이가튼 決定을본以上 今後는 그活用을 如何히 有效하게할가하는 點이問題이다 軍需資材는 勿論이고 民需에 必要한輸入도 이에依하야 確保할수잇는것이즉 輸出入關係者는 이點을 생각하야 日銀의이英斷을 意義잇게 하여줄것으로생각한다 이에對하여는 日銀正金은 勿論이고 關係當局은全力을 기우리어 右基金의有効適切한 運用을 講究할터이다 民間業者도 貿易全體에 마음을두어 協力을 하여주기를바란다

正貨準備의現送을 決定한것도物資動員計畫의 基礎 確立과 事變에 對한 確固不拔한 國策이 決定됨으로써 비로소 할수잇는것으로 單只國際收支의決濟를 하려는 그가튼 가벼운 意味에서는아니다 (寫眞은 結城日銀總裁)

夕刊後市況 (十九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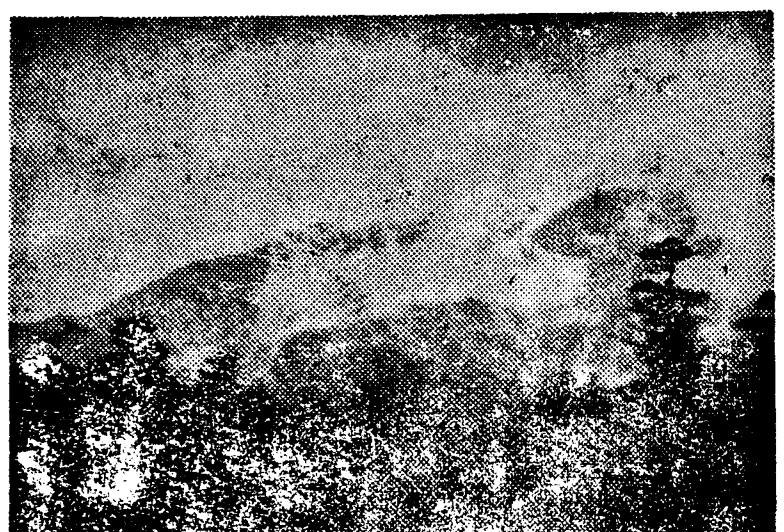
◆各地 期米 後止◆

	中限	先限
大邱	三·六○	三·六五
釜山		三·六四
群山		三·六五
木浦	三·五	三·六四
下關	三·四三	三·六六
名古		三·六六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滿井人絹	六九○	六九五
橫濱生系	八四○○	八八○○

智異山探險團員募集



本社에서는 三年前 白頭靈山探險事業을 緖頭로 해마다 夏節伏中을 占하야 域內名山을골라 地理의 考檢 博物의 探集을 志望하는 學徒들과 峻嶺險崖를 踏破코저하는 登山家들에게 微誠이나마 機會를提供하여왓던바 昨年에는 南海의 瀛洲로일컷는 奇峰漢拏山을 征服하야 所期以上의 收穫을 거두엇고 今年은 三南도 湖南嶺南兩域九郡에걸처 鎭座하야 周圍五百餘里標高六千三百餘尺 옛날부터 神山方丈으로일러온 智異山을 探險하기로되엿습니다

山中에는 名所古蹟과 伽藍祠宇가 點在한外에 山貌가 雄大 峰巒이 重疊 植物分布의 豐富한點은 登山家의 讚歎하야마지안는 名山이나 이山은 至今까지 完全한 踏破코ㅡ스가 서지 못하고 間或 私個人으로探險者가 잇섯스나 宿處露營等의 不便으로 좀처럼全山을 從斷踏破치는못한터로 今番本社가 幾多의犧牲을 不惜하고 滿滿한準備를 하야 團體的으로는最初로 全山縱斷突破計畫을 세웟습니다 이 機會에뜻잇는學徒들의 奮然 參加를願합니다

出發 七月二十八日夜
歸還 八月四日朝 (八日七泊)
定員 二十五名
會費 三十三圓

參加資格 二十歲以上五十歲以下의 登山에 堪當할 身體健康者로 動、植、博、地理、歷史學究들을 歡迎함
申請方法 七月二十五日까지本社事業部로 會費를添付申込함
便宜 露營用天幕及自炊道具는本社에서提供함

主催 朝鮮日報社

求禮咸陽코ー쓰 (探險日程)

第一日…午後十時十分京城驛出發 第二日…求禮口·泉隱寺·華嚴寺·求禮邑 第三日…燕谷寺·老姑壇(林業試驗場 아랫잠) 第四日…稷田·七佛庵·雙溪寺(佛日瀑布) 第五日…雙溪寺·新興 第六日…細石平田·天王峰(帝釋壇)·白武洞 第七日…白武·馬川·南原 第八日…京城着 (사진은 지리산의연봉)

獨學으로 判任官

日本唯一의 官吏養成通信學校

小學校卒業生도中學校卒業生도本會로온사람들은 一年以內의獨學으로 普通試驗에合格, 颯爽하게 日滿兩國의官公署에採用되여 判任官으로서 빗나는時日을보내고잇습니다 (前年度에도各地普文合格會員五百餘名) 本會는正히本邦唯一의官吏養成通信學校입니다

普通文官講義

朝鮮普文分地施行
朝鮮普文은本年度부터每年八月, 京城、大邱、平壤、全州、咸興의五個所에서施行되게된結果、全鮮及滿洲國在住의諸君은旅費도一掃(또는輕減)되어서 편하게受驗되게되엿다 (本年은八月十八日부터施行)

滿鮮版機關誌配付!
朝鮮普文의劃期的改正에祝意를表해서本會에서는本月以降의入會諸君에게는朝鮮普文의指導와朝鮮在住會友의빗나는消息、또는同地在住會員의論稿를滿載한特輯機關雜誌『滿鮮版』을每月配付해서同地의試驗合格促進을期하기로햇다。即刻入會해서今月의創刊號부터愛讀하라

合格表彰
本年도本會는前年度合格者中優秀四十五名에게奬學資金을또八十九名에게合格賞을주다

滿鮮會友의훌륭한成績
入會者도만코試驗合格과就職成功者도만코朝鮮과滿洲、다음에今月의本會發行『滿鮮版』機關雜誌에서二三을추어본다 ○曹在千君=昭和九年度朝鮮普文을首席合格、本會獎學資金受賞、本年度『高文豫備試驗』突破 ○其照景君=本年一月入會、本會施行豫備試驗에一等合格 ○坂詰五郎君=關東局과大藏省의二普文合格、今月感謝發表。○齊藤一志君=二十一歲로滿洲國高等法院書記官試驗에合格 感謝狀을本會에보내다。(其他省略)

目下記念大特典提供中 本新聞名記入申込次第 獨學成功要領載の「百余頁冊子」進呈

東京市澁谷區明治神宮表參道 (電話靑山六四番)
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

世界一品質の良い! 値段の安い!

蛇の目ミシン은…
只今이살때입니다!

◇日常의家庭生活에 미싱이잇고업는것은 能率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顯著한 差異가잇습니다。미싱만잇스면 衣裝의裁縫부터趣味잇는 미싱手藝刺繡가지 자미잇게잠간동안에되고 家事의能率增進에、大節約에 훌륭하게 所用됩니다。
◇品質의優良、價格의低廉으로 世界一이라고 日本은 勿論海外諸國으로부터激讚되고잇는國產『蛇の目ミシン』을只今이면 누구나손쉬웁게購入되는 月賦販賣가잇습니다。左記로請求하시면 美麗한目錄이 無代로送呈되니곳 葉書로請求하십시요

資本金參百萬圓
帝國ミシン株式會社 朝鮮總中央店
京城府本町二丁目八十五
電話 本局 三四四七番
振替 京 一八二九五番

直營分店七十數個所잇

洋裁講習生募集
高級洋裁懇切敎授
入會每月一日十五日
規則書進呈

國產 蛇の目ミシンの月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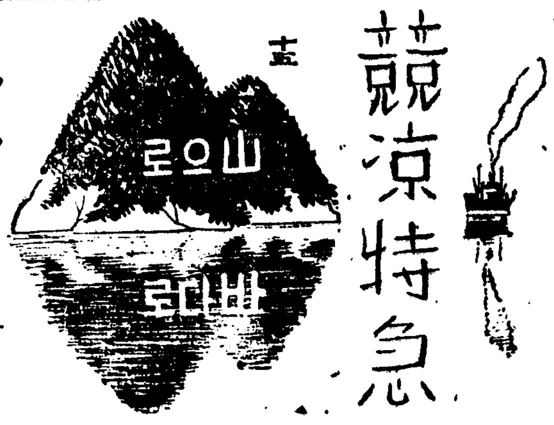
蓊鬱한大森林속에 展開된伐木의壯觀

落落長松쓰러지는瞬間神秘한香臭觸鼻!

山班 第二站 胞胎山 ②

文 李鍾模 / 畫 崔暻瀾

심심산곡에서 울려나오는 맹렬하는 도끼소리와 서투른 스르렁하는 톱질소리! 이것은 고요한 이산중에서만 아름답게 들리는 『음악』이다 우리는 이음향을 신호(信號)삼아 한거름씩 산골작으로 거려드러갓다 여기저기서 박자(拍子)를 마추듯이 뗑뗑소리와 서를렁소리만은 듯게되나 나무베는벌목부(伐木夫)의 그림자는 좀처럼 나타나지안는다 아름이넘는 굵은 나무 하늘을 찌를듯한 낙락장송 그아래서 도끼질하고잇는 육척미만인 벌목부의존재가 선뜻 보여지지 안흔것이 괴상한일이 아니언만은 우리는 너무도 궁금증이나서 초조하다 『어-』하는 소리를질러그들이잇는곳에신호를 보내다그편에서도 역시『어-』소리로 응답한다 기픈산중에서 이『어-』소리만이가장민속한연락방법인것을 우리는 여기서가장 절실히체험하엿다 누구든지 지튼산중이나 기픈산중으로 가서 길을잃어버리는 사람은 이 『어-』소리로써 연락을취하라 고께워주고싶다



競涼特急

배여버린 나무가지가 사람히 엉키고 발목이 푹푹 빠지는길 아닌 길을더드머서 우리는겨우 한골작이에 도착하야 청년벌목부 한명을만나다 만첩으로 둘러싸힌 이기픈산골에 뜻밧게지저도낫모를 우리일행을만나자 그벌목부는 이상한 눈초리로 우리를처다 본다 그리고는 그냥 성을도모르고 톱질을 계속하고잇다 약십분 동안우리는그벌목부가 방금베여너머트릴그낙락장송의 꺼구러지는 광경을 흥미잇게 구경하고잇섯다 드디어 그노픈나무의 최후의 생명은 끈처젓다 『찌-』하는 한마디소리를내고서 무참히도땅바닥에 쓰러저버리는 굵고 노픈나무가 찔어지는 그순간 우리는 일찌기 우리의취각(臭覺)으로는 마타보지못한 이상한향취가 코를찔럿다 그벌목부에게 무르니 이것은 금방베소나무에서 나는 나무향취라고 설명한다 이순간 우리는 형용할수업는이 소나무향취에 아주취하엿다 이 넘새야말로 어대자연이 우리에게 향응하는 별미로 생각되엿다 우리는 이넘새를 맛고 이속에서 거닐고도한 이산골의맑은 물을 마시게되니 신선도별로부럽지 안는기분을 가지게되엿다

◇

청년벌목부는우리를위하야 잠간 일을쉬엿다 그는 우리가뭇는말에 대답한다

『하로에 잘베는 사람이라도그저 열다섯개가량 밧게 베지못하고 보통열개가량 베오이다 하로의 일삭말이요? 척수(尺數)를 따라 계산하는것이외다마는 대개 일원아십전으로부터 일원오십전가량 수입되오이다』

그는 또 계속하여 이야기한다 이일은 몹시힘이들고 또한 누구 든지 다할수 업는 일이므로 다른 지방 에서 드러온 일꾼은 오래계속하지못한다 한다 이벌목하는일꾼은 대부분이 가산고을 사는 순련노동자들이라한다 벌목부들은 이와가티 인가업는 기픈산중에서 일년사철혹신의 생업이 업시 엘하야 그들의 생활은 단조하고 약한 처자를 부양하고 잇는것이다 그런 나 다름없는 통나무집이다 그들의 거처하는곳은 공동의 움막이다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미(美)라고는 꿈에도생각할수 업는것으로 그저몸부가티우기만 하는것이며 그들의먹고자는 일상생활은간자와 권태(倦怠)이다 반찬이라고는 소금이 주장이며 가끔 별히 조촐한반찬이라고해자 산중에서 근근히 가군배추같지이다 고기를 구경할수업는터이오 생선은 말할수업는터이다 불쌍한 인간세상에 이런 원시적생활을 하면서도 녀녀한생활을 하지못하니 인구가 조밀하거나 희박하거나 생활의고통은 인간에게 면할수업는 일인가보다

◇

어쨋든 벌목부가 베여너머트린 나무는 다시 가지를 추리고 척수를 마추아서 『조재』(造材)를 하게된다 한개의나무는대게 세거나 네개로 잘라서 조재를 한다 이조재는 다시분여력으로 소에 끄을려서 흉은 차번궤도차(森林軌道車)에 실어서내가로 운반하여낸다 그러면 거기서는 다시 그것을제게 홍운(?)하게식으로 한역군을 …야 떼를묵는다 떼를역는것과 떼를라는것도 각기분업이다 떼를역는데는 어떠무(?)로 엮는다 어느무리 나무만이 오직 떼를 역는데에 귀중히 소용된다 어나무도 저 각산남쪽지방에서 제공하게된다 한때(一筏)는 우리가본 이가 천(?)林川에서는여개씩 엮은데 예재이나 칠팔재을 연게하엿다 그러나 하류 혜산진이하로부터 는 그떼이를 더크게하고 또진가파(新坡)로부터 신의주로가 는것은 도더 훨신크게하여서 떼 웅다 기서 넘떼이나 땅떼의를 위이 좁고 물에 따라서 도 수세의 완급(緩急)을 따라서 떼를 역는법도 각기달르다 ―계속―

(사진은 벌목하는광경과 떼지을향하는광경)

게잡이男女九名 海潮에밀려沒死

高興海岸의慘事!

【高興支局特電】전남 고흥군 풍양면 보천리(高興郡豊陽面寶川里)에사는 여자 고씨(高氏)(四)외 남자한명여자일곱명등도합아홉명은 십구일오전여하시 고흥면고소리(高興面姑蘇里) 해안으로 게를잡으러나갓다가 물결에 쓸려 전부 빠저죽고말엇다 자세한 사정은 방금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滿洲産豆油로 石油代用品製造

大阪熊谷教授發明

【大阪電話同盟】세계총산액의약 십삼″퍼-센트″를 차지하는만주콩에서 만들어내는 콩기름을 석유대용품으로 사용할수잇는연구『이지음 대판제대 공학부교수 웅곡삼랑(熊谷三郞)박사외손에 발명되여 근근우치천전력회사(宇治川電力會社)에서 시험으로쓰기로 되엿다 해마다 일억원에 가까운 광유(礦油)가 소용되는 전기공업계로서는 큰복음이 되는바가격 연구이 다죽 콩기름을 전기공업에 필요한 절연유(絶緣油)로쓰면 광유보다 인화점(引火點)이노파 전기차단기(遮斷器)의 공업에 효능잇는 의 폭발률도 로조리며 또 점도(粘度)가커서유전률(誘電率)도 석유의 이곱마이에비하야 사라라는 갑절에 가까운 노픈비률이고 다시 절연내력저항(絶緣耐力抵抗)에잇서서도 대단히노픈 훌한점이 증명되엿다 그런나콩기름은 산화(酸化)되기쉬운것과 금속을 부식(腐蝕)케 하기쉬운점이 절연유로서 곤난한점이엿스나 웅곡박사는 화학적으로 특수한 처리를하야 산화방지에 성공하엿다

詐欺賭博으로 七千圓詐取

兩名이公謀廿數回犯行

용산서에서는 근일 관내 각요리집에 빈번히 드나들며 신분에맛지안는 홍유를 하는사나이가잇다는 소문을 탐지하고 이를수사하든중 공덕정(孔德町)삼십팔번지 김오성(金五星)(三七)으로 알게되엿스므로 십구일오전다섯시경에 전기주소에서 잡자고잇는것을 그서로 인치하고 취조한결과 이사나이는 천재에가까운 사기도박군임이 판명되엿는데 그는 홍제정(弘濟町)구십육번지의 열오박명수(朴明秀)(三二)가 장사미천으로 현금천여원이나 가지고 잇는것을알고 노름동무인 아현정(阿峴町) 사십일번지김흥갑(金興甲)(二七)이와 공모하고 박명수를 홍제정삼십이번지 김영득(金榮得)의집으로 데리고가서 현금 삼십여원을 신문지 뭉렝이와함께 조히에 싸고서 돈이만히 잇는것처럼 뵈인후『오이쪼』라는 화투를하여 하로밤에천여원을 사취하엿다는데 가튼수단으로 수십명에게서 칠천여원을 사취하여 주색에소비하엿다고한다

貨物自動車 電車를追突

화물자동차가 전차펑문이를 부서노앗다 십팔일후네시반 경성역아페서 교통신호를 기다리든 경일배오십호 전차가 남대문통향하야 드러오랴할지음에 뒤에서 달녀오던 경성빼스주식회사송주합자가 별안간전차꿈문이를 바더서 기둥과『반-벼-ㄴ』를 부서노앗는데 손해는 구십팔원이요 사람은상치안엇다

들창엿보는 窃盜注意! 더위지니까 점점 늘어

더위에 못이기여 밤새도록들창을 여러재치고자는이가 만흔데 길거리로 들창난집수난시대가왓다-십구일새벽에 서대문서원이 부내합정(蛤町)이백십삼번지 상원종일(桑原宗一)이집앞을 순행할지음 엇던자가 나무갈구랭이를가지고 전기 상원네집들창안에 걸린양복을 훔처내려하므로 곳잡아 취조한결과 그는 중림정(中林町)일백사십구번지의실업자김몽득(金夢得)(二七)으로 여러가를 다니든수단으로 서내를횡행하며 수십차 양복등을 절취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여죄를 조사중이라한다

滿朔의姙婦飮毒

남편의구박이심하야분고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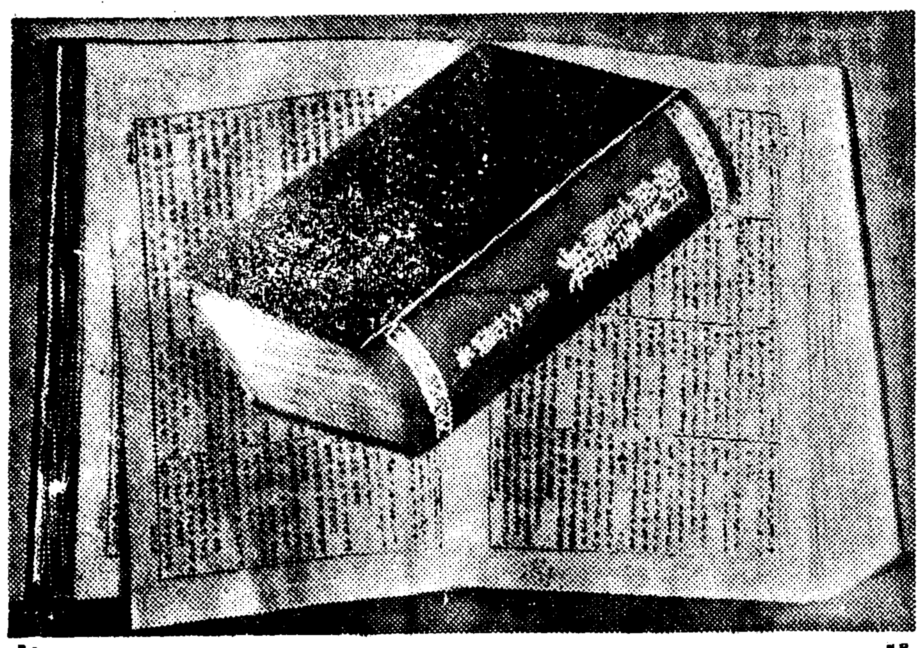
남편의구박에 견디다못해 만삭의목숨을 끈흐랴는 가련한중녀부인이잇다-부내관철정(貫鐵町)팔십번지 우미려관(優美旅館)에수일전부터 묵고잇든 전남 보성군득량면송곡리(寶城郡得粮面松谷里) 양회지(梁會址)의 처박장순(朴長順)(二三)은 십구일 오전한시쯤되여 여관방에서 양잿물을마시고 자살을도모하엿다 부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하엿스나 생명에는 관게업스나 만삭의 임부가 자살하랴는이면에는 남편의구박이심하야 수일전자살할 결심으로서울까지온것이판명되어 종로서에서는 그여자를 보호하고곳보성지남편에게 오도록전보를 첫다

欺瞞된同人들憤然

文藝峰、映畵界引退決意

聖峰映畵園賣身紛糾問題惡化

기보=성봉영화원(聖峰映畵園)이 조선영화주식회사에 매신된다는 사건은 그뒤성봉영화원의 동인사이에 크다란분규를이르켜서 대단한물의를 가저오고잇다 사건의상세한 내용을조사해보면 성봉영화원이″나그네″를 제작하야 전국적으로 커다란 ″센세-슌″을 어르키게 되자 천일영화사(天一映畵社)에서 흥행″뿌로커″로 수완을 날리든 홍찬(洪燦)이란 사람이 이것을 마려 가지고 동보(東寶)와 사이에″군용열차″제작계약을 성립시킨다음 홍찬의 사재와 동보조선배급소의 돈과″나그네″의이익금 일부를합처서 의정부에다″스터디오″를 설치할자금이 업스므로 중단시켜두고 동보와 제휴하야″군용열차″를제작하고 동보에서 일만원의제작비는 등분이가 중간에서바더 가지고 성봉에홍찬에게 융통하지금을이유로 내여노치 안흘뿐아니라 투자한금액이 나올수업게되엿스므로 홍찬 왕평(王平)등이 동인대표임을기화로 동인들과 더부러 조영매신교섭을 진행시키라고 백현권씨등장시킨다음 동인에게는 아무말이업시 암중비약을 하다가 어저여 문예봉(文藝峰) 서광제(徐光霽) 임선규(林仙圭)등 동인에게 알린바되자 배임을 당한 동인들이 분개하야 그들의 배임을 징치하므로 홍찬 왕평등은 해명을 갖추고 잇는중으로서 이러한배임에분개한 문예봉은 영화계에서의 은퇴까지 결심하고 강경한태도로 나아가고잇는데 다음의추이가 주목된다



裝幀도豪華롭게 雄姿를世上에現身

文世榮氏著朝鮮語大辭典

孜孜心血傾注 十年의結晶!

청남 문세영(靑園 文世榮)씨의 지은 조선어사전은 제일판 일천권이 드디어 오는지장에나 온다 이채한권을 지기위하야 아홉해의 세월과 가재(家財)를 털어바친채 오직정성과 피땀을 부어서 마침내 오늘의 큰자랑을 조선학계에 뚜려시 세워노키는 저작자의 감격도 크거니와 세종(世宗)께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지으신 이래 사백구십삼년만에 비로소 처음으로 조선사람의 손으로 지은 조선말 사전을 선물밧는 학계의 감격이 또한크다.

국판(菊版)일천칠백여페지 여기모하는 말의 수효십만 이것을 인쇄에 부치고나서 삼년 교정(校正)까지도 친히 부담하엿다하매 세삼스러히 작인의 뜨거운 성심을 짐작하기 어렵지아니하다. 갑오경장이후 출판비가 한권에 유원칠십전이라니 여기서도 이익을 초월한 실비라, 여기서도이 귀한선물을 동포로하여금 지지안흔 출자자(出資者) 노익형(盧益亨)씨의 희생을엿볼것이다。어 책이 처번의 출판 그대로 완전하고 못한것은 무슨바가아니다 오백년동안 써오든그말 그글의 사전을이제나마 혼잣힘으로 학게에선사하야 아프로 더빗나고귀한문헌을 지어낼 모체(母體)를내노흔것만으로도학게 성사(盛事)라아니할수업다.

아프로도 이사업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저작자 문세영씨는 이러케 말한다.

부족한것이올은 나자신도 잘압니다 그러나 아프로이것을바탕으로 삼고더완전한것을 맨들기위하여일생을바치고자합니다. 오늘의 이깃븜을 엇기위하야 지나간 아홉해 얼마나 고생을하엿는지 그것은 자랑꺼리가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조선사람도 그말의 사전을 갓지못햇다는 붓그러움을 면한것이기쁩니다. 이한가지만으로 일반학계에서도 너그러히 보아주실줄압니다 너무깃버도 눈물이 납니다그려

(사진은 저작자 문세영씨의 사전과내용 일부)

人氣流行歌手 羅品心飮毒

俳優王某에게失戀코

羅品心

한시절 조선의 카나리아로유행가수로서 뿐만아니라 연극배우로도 인기가놉든 나품심(羅品心)(二〇)이 십구일 아침 광희정(光熙町) 자택에서 칼모친을 먹만히고 신음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즉시부근병원에 입원시켜 응급치료를하고 잇는데 생명이 위독하다

원인은 지금성봉영화원의매신운동에 커다란역할을하고 일즉이 유행가수로영화배우로인기의절정에잇는 왕모(王某)라는 사람과의사이에잇해동안이나계속되든사랑이 며칠전 왕모로부터 냉정한 절연장이왓스므로 하늘가티 미덧든왕모의 냉정을 원망하던 나머지 이것을 비관하야 음독하게되엿다한다

스포-츠欄

白友庭球團京城서 學生軍과對戰

今日午後四時에

鄕土訪問中에잇는 東京白友庭球俱樂部一行은 今二十日朝七時京城驛着列車로 入京하야 少憩한後 同日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全京城學生選拔軍과 一戰을交할터인데 觀覽은無料라고한다

硬式庭球에早大勝捷

朝鮮庭球(硬球)聯盟主催의 早大庭球部招聘의 對全京城戰은 十九日午後一時半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擧行하바 早大軍은 「더불스」와 「싱글스」에 八對一로 大勝하엿다한다

◇複式◇ 【早大】 【全京城】
三淵 6…1、6…1 胡子
木村 6…0、6…2 井上
中田 6…0、6…0 村上
◇單式◇ 【早大】 【全京城】
三淵 6…1、6…1 胡子
鹿野 6…0、6…2 鹽飽
福田 6…0、6…0 菅
木村 6…8、6…6 狩野
中原 6…8、6…3 河村
田中 6…1、6…1 保田

各校의…… 夏休플랜

▲普成中學水泳部에서는 今夏를利用하야 部員百名은 趙英河氏引率下에 二十一日로부터十日間 仁川松島園에서 水泳練習會를 열리라고
▲徽文中學水泳隊四十名은 水泳練習次로 李圭鉉、白龍基兩氏引率下에 仁川松島園에
▲中央中學海水浴隊一行四十名은 趙熙氏引率下에 來二十三日午後十一時 京城驛發 元山松濤園에
▲外國語學院水泳部員十二名은 二十一日午前八時京城驛發 宋玉憲氏引率下에 十日間豫定으로 水泳練習次 元山松濤園에

京城場所第七日戰績

番神山(押出)綾若
藤里(押出)大浪
富士嶺(打棄)大和錦
安藝海(押出)高登
出羽湊(押出)巴潟
龍王山(叩出)鶴嶺
出羽花(下手投)桂川
小島川(寄切)駒里
青葉山(吊出)九州山
鹿島洋(押出)旭川
和歌島(寄切)源氏山
笠置山(吊出)幡瀨川
鯱里(寄切)兩國
大邱山(下手投)大潮
羽黑山(叩出)五島
名寄岩(寄切)磐石
前田山(寄切)鏡岩
雙葉山(寄切)男女川
(開戰六時半)

今日의運動

▲庭球=東京白友庭球俱樂部對全京城學生選拔軍 庭球對抗戰 午後四時 京城運動場코-트(觀覽無料)

종달

음식은 배를채우기 위하야 먹는것이요 옷은몸을 가리우기 위하야입는것이 주요목적이다
○일년사시절을따라 이것이금년유행 저것이 이번『스타일』이니하야 유행을 선전하는 장사와 『모던뽀이와걸』들의 의기가양양하엿다
○그러나 그못된 유행도 시국관계로 이제는 여지업시 퇴각을당하게되엿다
○그저몸에 맛도록 맨드럿으면그만이지 해마다 자꾸 새유행이 어데필요가 어데잇는가
○장사치의 요술에춤추던 정신업는 남녀들 이제는 반성할때가 왓다
○여자들의 치마가구두를 덥도록 기러진것은 거름것기에도불편해 보인다 전강우에 닷는짧은 치마를 입던 때와는 너무도 반대경향이다
○선여성들이여 이것도 한번생각해 볼꺼리가 아닐까

曆

▲七月二十日(水曜)陰六月二十三日 ▲干支 癸丑 ▲日出 午前五時二十七分 ▲日南中 午後零時四十分 ▲日入 午後七時五十二分 ▲晝間 十四時二十五分 ▲月出午後十一時四十六分 ▲月入 午後零時三十六分 ▲滿潮(仁川)午前九時四十五分과 午後十時二十分

廣告

…完璧·豪華 要素를가춘라디오
D—14號
58—57—47B—12F
マツダ球付 ￥66.00
(說明書進呈)
京城府本町一ノ三
山中電機京城出張所
本社·東京·大阪

각社レコード蓄音器
各種樂器
東洋樂器店
京城府樂園町一三八番
電話光化門六九三番
振替京城二八〇八一番

松の實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性器强大藥
男子性器短小와 早漏에百發百中!!

(淸導補腎丸)
早漏防止

淋疾에매독에 명약이올시다
國境大藥房
振替京城二二五一番
振替奉天二三、四二九番

淋疾에 トリパアギン
京城昌信町
製造元 朝鮮新藥合資會社
電話光三五四七

母乳와가튼
キノミール(기노미-루)
토실토실살찌고
튼튼하게
애기를길르고십흔
어머니들께
自信을가지고
勸하옵니다
キノミール는 在來의粉乳類와달라 牛乳를 그대로 乾燥한것이 아닙니다 愛育에 必要한 비타민과칼슘을適當히 加入해서調劑한것이故로 애기들의愛育을 助成하며 將來의繁實을 完成합니다
「育兒의요령」進呈
大 五〇〇瓦
小 二五〇瓦

和光堂
東京市神田區鍛冶町
大阪市東區久太郎町
K305

濕疹부스럼
惡性여드름
潛伏梅毒
胎毒一切
毒掃丸
重症用 二円 三円 五円 十円 廿円 卅円
普通の毒掃丸 五十錢 一円 二円 五円
本舖 東京市神田花房町山崎帝國堂

日立モートル
本店 東京市麴町區丸ノ內二ノ十二
京城營業所 京城府古市町二十(片倉館) 電話本局(2)一八一六(代) (2)五八一六(夜)
平壤出張所 平壤府黃金町一五 電話平壤二三二七
淸津出張所 淸津府港町一ノ六(商工會館) 電話淸津二八六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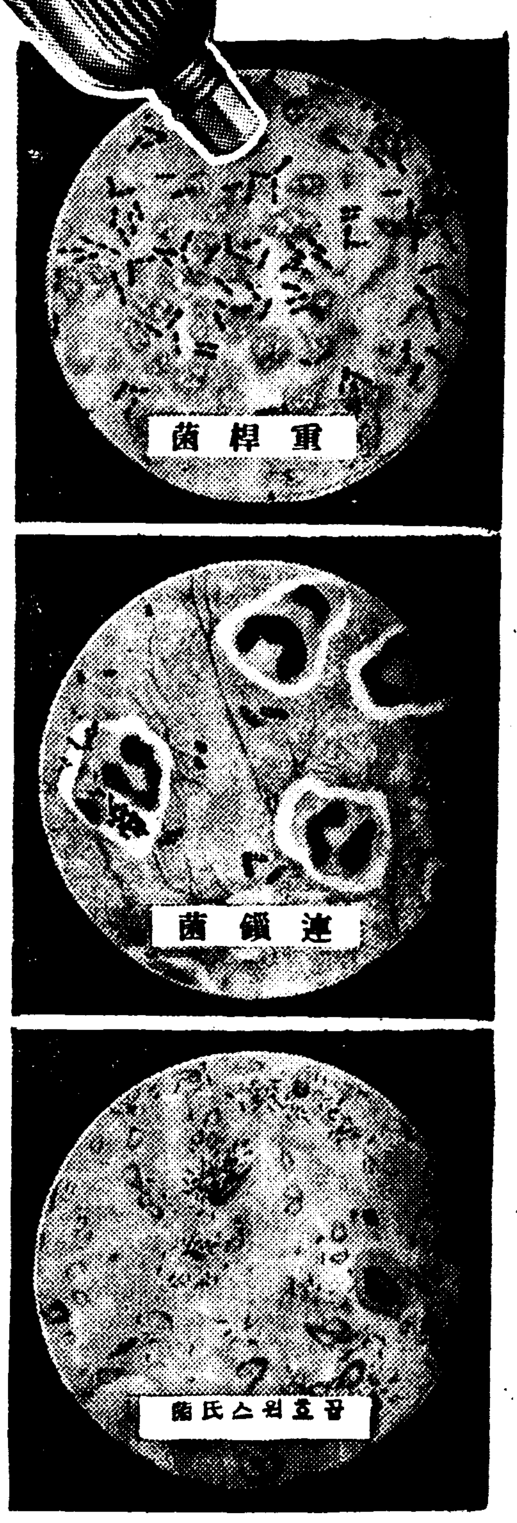
日立モートル 農事用單相
日立マグネトー
日立電氣ドリル
日立電氣グラインダー
日立電氣ポンプ
日立ホイスト
日立製作所

● 國民精神總動員

○神宮과皇居에進拜를합시다
○慰問袋와慰問狀을보냅시다
○國産品을愛用합시다
○虛費말고貯金합시다

쓰리지안코 아푸지안는

로-도안약



●모락기스악센펠드氏重桿菌은 慢性結膜炎과共히 眼瞼炎을이르키는特性이있다 略稱重桿菌

●連鎖菌은 가장危險한菌種의 하나結膜에 甚히凶惡한僞膜을만 들고角膜을破壞하는일도있다

●코호위스氏菌은가늘고긴桿菌 으로急性傳染性結膜炎을이르키 는것醫學上緊要한病原菌입니다

赤い目や目に

危いぞそれは結膜炎の症狀だ!

結膜炎

結膜炎은 [illegible] 흔히[illegible]·붉은눈等이라고해서眼病中에도 가장흔히걸리는病의하나입니다 어[illegible] 結膜에 充血이되야눈 거풀이붓고 눈곱이나고 눈에 異物感을 感覺하게됩니다 甚해지면 눈 고름과가튼눈곱이나고視力도障礙해집니다。이것을 治療하에는 每朝洗面時에淸水로눈을잘 씻고눈곱을씻가내여서 로-ト目藥을一日二三回點眼합니다

로-ト目藥은그……

1、殺菌作用으로病原菌을죽이고
2、消炎作用으로炎症을없애고
3、鎭痛作用으로疼痛을멈추고
4、收斂作用으로潰瘍面、滲出液을 收縮해서分泌物을抑制하는等各그性能이綜合的으로 活動하야 優秀한效果를 나타냅니다。

角膜炎

角膜炎은 俗稱삼눈、쑤시는눈、星目、雲目等이라고하는 黑眼의炎症으로黑眼이 濁해지고 하얀것이 덮이지고해서 눈이 침침해보이고 물시고눈물이나며 눈갓이 진무르기도합니다 [illegible]은 大概結膜炎과갓습니다。

로-ト目藥의優秀한消炎作用은 角膜의炎症에 對해서가장有效합니다。

도라홈

도라호-므는 結膜에 充血이되고 작은잔알맹이가생기는데 別로아프지안키때문에그대로 내버려두면 알맹이는 점점만허저서 眼球를刺戟하고 눈에異物感을 感覺하고 개문자위가흐려지고눈섭이 까실해서눈모양을보기실케할은 말할것도업고 重症으로移行해서 매우어려케되는일이잇습니다。이眼疾은 輕할때治療하는것이조코、重해지면 오래걸리게되므로自然히治療를等閑하는데 完治될때까지 決코治療를게을리해서는안됩니다。治療는 每朝洗面後一日數回로-ト目藥의點眼을勵行하고 이것을 꾸준히繼續할것입니다。로-ト目藥의 優秀한作用은 病勢를 잘抑壓하고 頓挫시켜서 그治療를 速하게합니다。

小兒의눈에는

어거녀들어 아침에눈곱으로 눈이 잘안떠지는게 [illegible] 흰자위가붉으스레하게 充血해올경우 그것은 대개急性結膜炎의症狀입니다 그런때에는 特히小兒專用으로 處方調劑한 小兒用로-ト目藥을 使用해주십시요 좃케效하고 알흐지아어서 아주잘듣습니다。

【適應症】

結膜炎・角膜炎・도라호-므
疲勞眼・學校眼炎・眼瞼緣炎
角膜炎・結膜充血・麥粒腫等

俗稱……졀린눈・충혈눈・淚眼・爛目・血目・雲目・星目・흐린눈・발눈앗질・부은눈・다라지

藥價 ◇大瓶 三十錢 ◇小瓶 二十錢 ◇小兒用 五十錢 二十錢
▼全國到處藥店에잇습

◎ロート目藥의點眼容器

第一로 携帶에便利합니다
第二로 使用法이 簡便하고 게다가 적어잇기때문에衛生的입니다
第三으로新案特許의 自動式임으로 一滴의定量을넣습니다

大阪 山田安民藥房

우리차지

문어

문어는여덟개의다리를 가지고 바위틈에도 들어갓고 기어도 다니고 무엇도잡아먹고 합니다 문어에는 얼자넘는놈이잇는데 작금 고기잡이배를 휘감아 어퍼트리고 사람을 해한다고합니다
다른물고기의피는 데개빨갓케 문어의 피는 파로스름하대요
(공사람 박정호)

家庭

여름에제일만흔 무서운미친개

개에게는예방주사를마칩시요 물렷다가는참말큰일

날세가 몹시더우면 개도 여러가지 병에걸리기쉬운데 그중에도 제일무섭고 어려운것은광견병(狂犬病)입니다.

미친개에게 물리면 대개는살기어렵고 살든때도 폐인이되기쉬웟습니다. 그리고 물린사람의말기도 어려운것입니다.

미친개이지 성한개이지 구별하는것은 만일 집에서 기르는개면 어딘가 보통때보담 불안한 모양으로 자리를 잡지못하고 공중을향해서 무얼 깨물려든지 도망을하려고합니다. 또는닥치는대로 그냥먹어버린다거나하면 이는 광견병의 극히 초기로써 어때에 곳 알어보고 쇠사슬노 비끄러매고 어떠케 처치하지안으면 큰일납니다.

이러케해가지고 두주일만되면 곳 발광기에 드러가서 미친날치고 훅, 나무, 구두짝할것업시 함부로 물어뜻으며 목소리가쉬여서 대단히 고통하는것이 보힙니다.

그리다가 사오일지나면 마비(痲痺)되어버립니다. 어떠케되면 눈이 흐리고 허리를 꾸부리고 침을 흘리며 몹씨괴로워합니다. 어러케 일주일만 지나면 그만죽어버리는것이 보통입니다.

광견병이란 대체 무엇으로되는지 아직확실하지 못하나 개의 누선(淚腺)타액분비선(唾液分泌線)유선(乳腺) 림파액(淋巴液)등가운데잇는 일종『오비』체리라고합니다.

따라서 개를기르는 사람은일년에한번식 반드시 예방주사를 맞게하고 또는 개에게 미친증세가 보히거든 곳경찰에 알려서 처분하도록 하지안흐면 안됩니다.

미친개가 사람을 물면 미친개침속에잇는 병원체(病原體)가 사람에 몸에드러가서 곳발병은 하지안터라도 대개 어주일이면 증세가 나타나는것이 보통입니다.

물린자죽이 중추신경(中樞神經)과 멀면멀사록 발병이늣는데 이러케되면 두달후 혹은반년후에 발병하는수도잇습니다.

그러므로 얼골이나 상체를물니면 발병이 빠르고 다리나발갓치 머리와 먼데는 비교적늣게 발병합니다.

물린상처는 아조완전히 나어서 별일이업슬리라고 생각하고 아모치료도안코 잇스면 그동안 병은 아조악화해버립니다. 그런데 흔히물려가지고도 발병안하는 사람도잇는데 그것은그사람에게저항력이 아조강하거나 물린것이 극히적을때에 잇을수잇스나 어러한일은 대단히 드물고 대개는 물리면 발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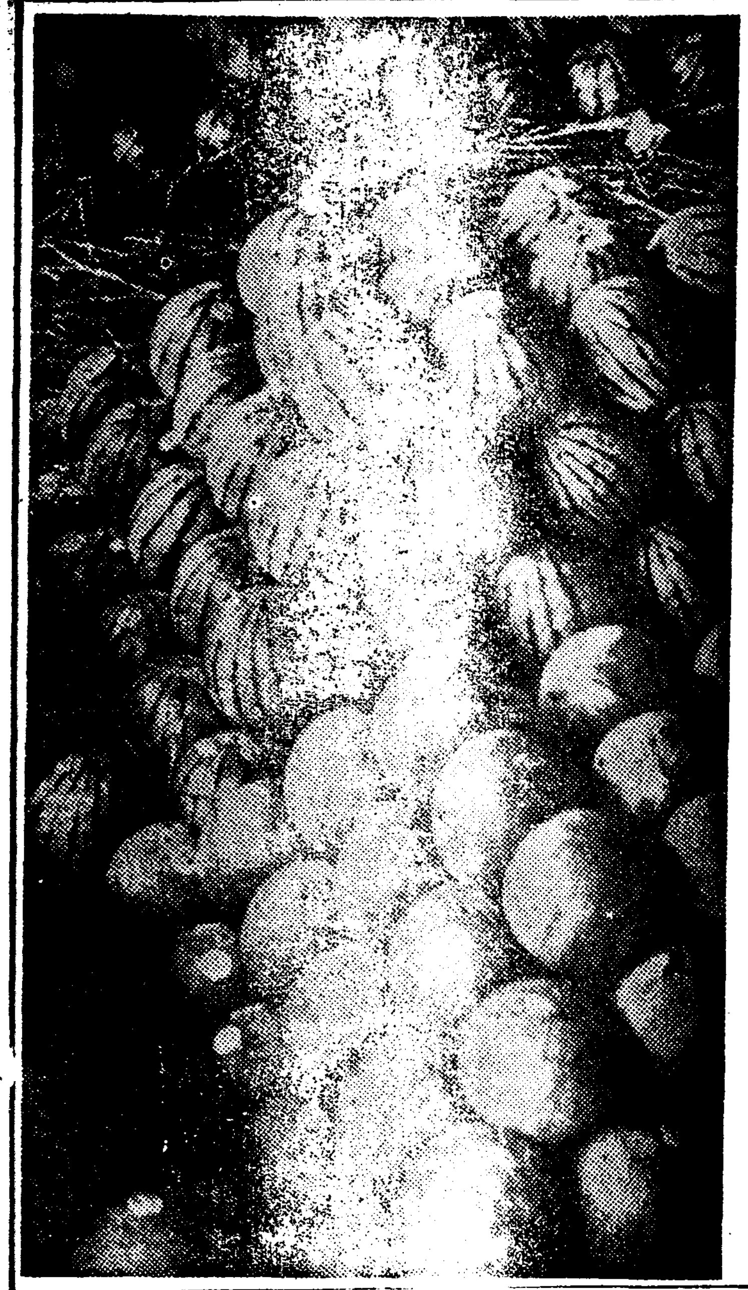
발병하기시작하면 물린자리가 가렵고 때로는 아프고 공연히 우울해지고 식욕도업시 지나다가 일주일쯤되면 인후(咽喉)의 근육이 옥으라드러서 무어이든지 생킬수도업고 미운기름것이라도마실수가업시됩니다.

그리고 물을보기만하면 온몸의 근육이 비비틀리는까닭에공수병(恐水病)이라고도합니다. 이러는동안에 열이놉고 마비상태가되엿다가 흔흥기가 마비되여서 죽습니다.

어러케 한번걸리기가 불행으로 다시는 어떠케 치료하는법이 업는 병임으로 개에게 물렷거든 곳의사에게 진찰을밧고 예방접종(豫防接種)을하면 안전히 발병을 막을수잇는것입니다.

어병은 물려가지고도 곳발병하지안키때문에 등한히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잇스나 생각하면 이에서 더무서운병은 업습니다.

그리고 미친개의 의심이잇는것은 보는대로 곳경찰에 보고해야할것이오 더구나 그냥도라다니는 야견(野犬)으로 광폭성이잇는것은 더구나 위험하니까 주의하지안으면 안됩니다.



수박

신장염에조코 냄새는식욕을도와

어찌울금소
나맛야어먹

수박에다 설탕을 처먹는것이 보통인줄아나 사실은 수박에다 소금을 알맛게처먹으면 그것처럼 맛난것은 업습니다.

그리고 수박가튼것은 거어다 물인데 그대로먹으면 수분이 너무 몸밧그로 빠지는데 거기에따라서 몸가온대잇든 염분도 빠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이부족되는 염분을 보충하려면 수박에 소금을 처먹는것이 일리가 잇는일입니다.

그리고 수박에 소금을처먹으면 단맛도 더나는데그대로먹으면 그처럼 달지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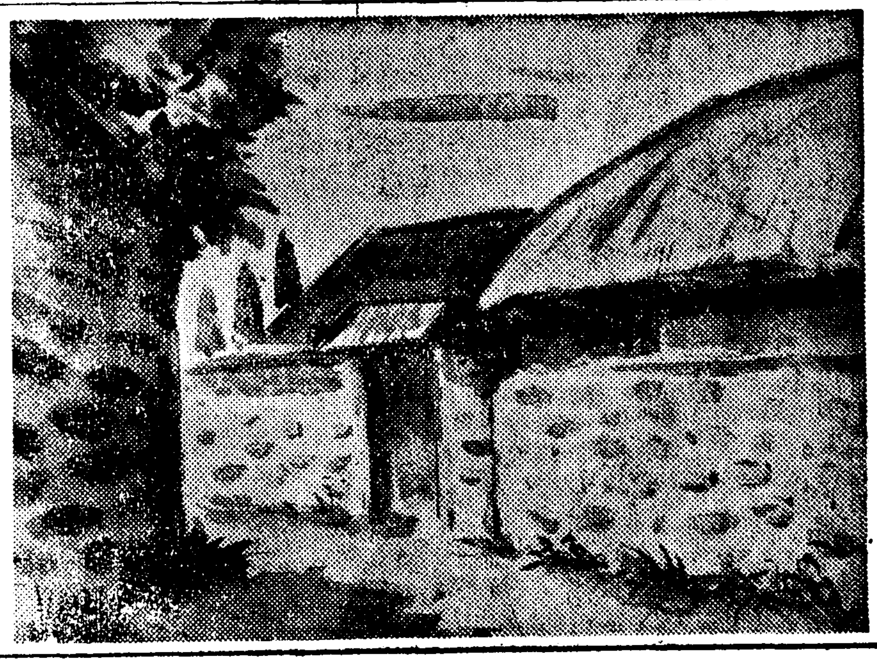
그다음 수박은 신장병에 특효가잇는데 그것은 수박가운데 카리움 염류가잇는데 이염류는 수박을 먹을때우리몸에 드러갓다가 다시몸밧그로 나오지 안흐면 안됩니다. 그런데 식염을 배설할때는 오줌이 나오게됩니다 그러므로 신장병에 효과가잇는 것입니다.

또는 한편 오줌을 눕다는것은 몸가온데잇는 노폐물을 몸밧그로 내보내는것임으로 [illegible]것을 더러주는것입니다.

신장병에 걸리면 영양의 장애로 몸이 지연되게되는데 그것은 오줌을 할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때를에수박을 먹으면 오줌이시원이 나오고 따라서 신장병에 좋습니다.

또한가지는 수박은 게와밖업이고와서 더구나 식욕을돋치어하는것입니다. 음식이면 반드시 [illegible] 소화의 [illegible]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째에 수박은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長篇小說 愚氓 【85】

朴泰遠 作 洪祐伯 畫

近東位의要領(6)

마침내 지영은 단념하여 버렷다 그는 동지와 가운데 끌려, 가장 진실하지도 제권자의 입의로 맛겨 버렷다.

어제 참을 위하여서구가 거리로 나오지 안흐면 안될거되엿슬때, 그의 아버니 최인화는 아들 지영에게 파얌을 틀리여 자기의 주장대로 서울로 올려 가자 하엿다. 서울로 올리가서 대원님의 자비(慈悲)를 빌자 하엿다. 네가 대원님에게 공손히(恭順)만 하면 대원님은 우리를 을 잘 지도하여 주시리라 하엿다. 첫재로는 도라가신조부님의 삼십년간 적공을 허되히하지 안키 위하여서도 그래야 하겟거니와 또 지금 당장 그수밧게 무슨 다른 조혼 도리가 잇스랴 하엿다.

그는 거의 아들에게 애원을 하다시피하엿스나 아들이 듯지안핫슬때 그는 마친내 크게노하엿다.

『그리 가를 몰로 막대한 자식은 아마 천하에도 다시업스리랑 네 어놈 아비 말을안듯겟거던 혼자 너갈대로 가버러랑 다시 낫짝도보기 실흐니……』

아들은 선선히 그리마 하고 자기 처자와 운천이를 데리고 해주로 떠날 계획을 세웟다. 그는 어머니를 향하여 말하엿다.

『어머니도 나와 함께 갓지다 ◦아버지를 따라 다니드라도 선뜻한 수가 잇슬리 업스니……』

만약 자기의 영감과 아들이 도저히 의견의 일치를 가질수 업서, 마친내는 이러케 한집안이 두파로 갈리서야만 하다는것이라하면, 이미 오십이 넘은 여인의 마음은, 흠은 영감에게보다도, 아들과 시집 안간 딸파, 또 귀여운 손자에게 좇더 기픈 애착을 느끼지안흘수 업섯다. 그러케 되고 보니 주재(主宰)이 전도(顚倒)되여 집안에서 내칭을 맛는것은결코 권영이가 아니라 자기 최인화가 되여 버린것이엿다.

최인화는 흥해, 흥해, 설력하여 보앗다 별기실 못하는 날

어지여, 아모리 바루 열려주어도 알어 듯지 못하는 동지긴것을, 너이들이야 어떠케 보면 나는 알안곳이 업다, 그저 나 혼자라도 본분으로 올라 가려라 —그러케도 생각하여 보앗던것이지만, 역시 다시 도리켜 생각하여 보앗슬때 일어탄 그때치가 아니엿다.

알을 하나로 자기가 가더라도 설혹 대원님이 용납하여 주시지안흐리라 잇스랴—어느 정도까지 자신은 잇섯지만 그냥식과 대우는 밧기가 실랑 역시 전부터 은근히 궁리하여 두어런것과 가티 운천이 변을 갓다 바처야만 대원님께서도 자기를 그만치은 대접하여 주실것이다 그러나 정작 운천이는 권영이놈이 제 누이라고 봇을고 노치를 안는다 최인화는여시 운천이를 동반하지안코 대원님을 뵈옵는 자기의 몸이너무나 초라한것임을 느끼지안흘수 업섯다.

그래 그는 당장 어쩌는 도리 업시 아들 권영의 뒤를따라 해주 까지 조차 갓거지만 그것 팔고도 또 그냥 그것을 을 내버려 두면 그 주책 업는 자식이 무슨 낫떼 업는짓이라도 하여 빼빼교의 교비(教費)를 누설하고 그때 마친내는 무서운 교의 형벌이 일문에미치지나 안흘까?——그것이 무텬이나 두려워 아들의 행동을 은근히 감시 하여보기로 한것이다.

그리은 해주읍 광석정(廣石町)에다 사글세 구원짜리집을한채 어더 들엇다. 그리고 권영은 매일가티 무엇을 주선하러 분주히 나다니엿다.……

이러한 일체의 보고를 바든 대원님은 심봉사에게 아직 그곳에 남어 잇서 그들의 동정을 게오름 업시 살피라고 명령을 나렷다.

물론 이러한 사정을 근동위는 도무지 알턱이 업다. 그래그는 무턱이나 궁금하엿고 도이번에 대원님이 취하신 태도가 설대(先代)부터 교에 공로가 큰자기에게 너무나 섭섭한것이엿다 하여 마음이섭섭 수 업섯다

부인병으로 쓰라린세월을 보내시는여러분!

깃뿐소식이잇습니다 帝大病院서 쓰는 『와세돈球』로 치료하시면 가정에서도 손쉽게 나어버립니다

더운요새에 몸에소름이끼치거나 신열이나오고 두통이몹시나며 아래배와허리가쑤시고 아푸지안습니까?

그러때마다 기분이나쁘며 아래가 호호하거나 쓰리면서 냉 (대하)이흘러나옵니다

이런때 흔히 대단 몸이고단해져 그러케 『대한』가 나오느니하시고 대소롭지안케생각하시나 그것은 반듯이 부인병에 걸린때문에 대하증이나오는것입니다 흔히부인병의병원은 어느곳이나하면 자궁입니다 그곳에 병균이드러가서 흥분을일으키고 진물는게하야 그진물과 고름이 대하증이며 더구나여러분어 깨닷는 부인병의증세를 될지에까지지나라내이게하고 잇는것입니다 그러므로『대하증』이 잇스면 아예몸다니게되면아니라품 전신이 쇠약해가고 더구나 어여쁜자태를 도모지 찾지못하게까지만들어습니다

◦

또한 부인병은 날이지날수록 낫기에오래걸니는병이만큼 『경증』의원일수록 하루밧비 적실한치료법으로 곳치주시셔요.

부인병을곳치시켜라면 먼놈약으로는 낫지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병원균이 자궁조직속에서 그곳에 직접치료를하지안는이상아모리 약을먹는다도 장독하여도 그곳에서원동하고잇는 병균은 님무도 강하며 흠벌도 업습니다 생겨잇는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환부에치료하는약이 다조흔나하면그러치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팔니고잇는 『거문방』 둣는 것은 흔흔 아한개를가지고 때쉬쓰게만드는것은 정당치못합니다 그것은 그양울쉼위잇는것이면서 안쏘고잇는 것으로도 그진호흡일수잇슬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듯이 帝大病院 赤十字病院서만치료하자를매일부원하고잇는 의사전문야『와세돈球』로 치료하서야만 단시일안에 근치됩니다 이런우든 나쁜약을 의처로 목하는바가아니오니 약만은 조후가으로 치료하서는것이 속히낫는까닭에 환자를봉급이란도라 구원하자는뜻에서 그리팔삼드리는바입니다 속히 병고에서 버서나실여러분은 조금도 주저마시고 속히 『와세돈球』로 치료하시사는치의 경쟁을 어더주시기바랍니다.

뚜렷한 살은 實例

別別藥中의眞珠입니다 京城 孫寅子

(前略) 여름이되면 더욱심하야 허리가 아프고 말못할신고를겪는제가 남편가티 姙娠의기쁨을어게되니 무어라치사하오리까 一時는 內服藥坐藥까지먹어보앗스나 효력은업섯습니다 (中略) 영영낫지안는病이로구나하고 斷念햇슬때의술을에서救해준것이 연보든 『와세돈球』입니다 자기의치료과함께권해준 『와세돈球』입니다

淋毒性內膜炎이낫어 새로운夫婦愛 延平 朴順愛

이와가티 기쁜에넘치서 뭇습을돌아 엇어 도저히잇지안엿습니다. 그것이제각할때 淋病의눈물의말들을한 오르겠습니다 (中略)男便은 自己의 淋病을 감추기입하야 나의淋毒性內膜炎이잇슴을 말하지아니하고 淋菌培養에게도 보이지못하게엿으로 결국대하를애回기서져지나오게되고 熱이나며 局部를中心으로 그부근이 심히 압퍼서 죽을지경이엿습니다 (中略)內服藥과 坐藥을차고전해도 지에 권하는대로 써보앗스나 아모효험도 업고해서 친경으로도라갓습니다 바로그날偶然히놀러왓든 친한동무에게 『와세돈球』를 권하엿습니다 의학적으로 쓰고 『와세돈球』를 쓰기始作하엿숩니다 (中略) 赤色帶下쓰던 몸이편하여지고 氣分이조흐므로 連續하야使用하엿더니 압플이경하여지들따 대하물이점점적어지고 (中略) 男便도自己의 잘못을後悔하며 明朗한家庭에 全心하야 全快할날이멀지안흐므로 近日內로 시가로간가기로결정하엿습니다 (後略)

處女대하증이 『와세돈球』의德分으로낫다 仁川 金龍女

전날보내주신 『여성의신생리학』과 贈刊六日分은 틀넘없이영수하엿사오며 그약을쓰기시작한지 일주일만에 증세는무사히 나엇스며 同時에가려운증세도 어지젓스며 구나그전에머리나는 『대하물』도 나오지 안으며 기분도조화지고 제일염려하엿든것 몹의것이며 그후로는 昨年여름부터 『흡연』 어리나지다고하면 그동안 『거문방』 나는 약을쓰고잇섯스나 조곰도効力이업을뿐만아니라 도로혀심한 고통을느끼고잇섯다 합니다

그래요새에는 제가쓰든약을가티쓰고잇사오니 일동보내주심을희망하옵나이다

부인병치료에쓰시는 名病院에서도쓰고잇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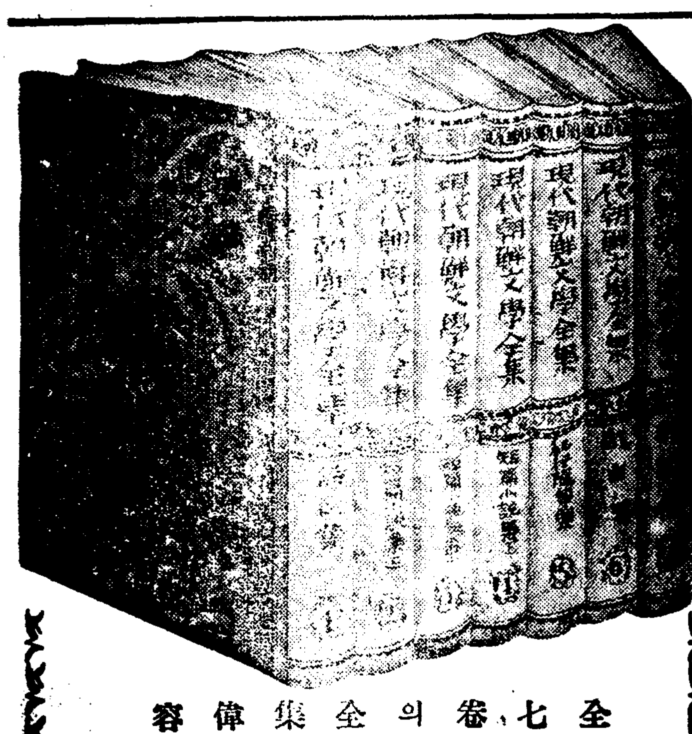
東京帝大附屬病院
京都帝大附屬病院
九州帝大附屬病院
東北帝大附屬病院
日本赤十字社病院
救世軍病院
日本醫大附屬病院
大阪醫大附屬病院
[illegible]
[illegible]

가정에서 손쉽게 근치되는

와세돈球는 깨끗한 미련한것이니 약한개를 넣고주무시면 조곰도 이상한감이업시 꿋꿋이서 약기운은대화근에 작용하고 몸전신에 퍼저서 꼿근치됩니다 약가는 一十二日分…一圓卅錢、廿四日分…二圓廿錢、卅六日分三圓四十錢(病院用四十粒)四十四錢十二圓이오며동하시는대로 조선국문으로 알기쉽게쓴 『부인의신생리학』을어느분에게도 거저드리며 대환영합니다 속히하옵니다

總販賣元 京城府[illegible]町三ノ一 錦河原商店 (振替京城一二六九一)

現代朝鮮文學全集



全七卷의全集偉容

五回配本 評論集

天馬行空의勢로 再版發賣中!!

篇篇巨筆의「評論集」大人氣

暴風雨가튼歡迎裡에『現代朝鮮文學全集』은回를거듭할사록더욱더욱最高調를呈하여 一回二回配本이벌서三版이出來하고三回四回配本도再版이거이賣盡되여가는中이다。다시第五回配本으로『評論集』이出刊되여滿天下讀書界의大人氣로再版이、어느듯나오게되엿다 이『評論集』은斯界權威들이그의蘊蓄을기우려쓴巨筆이니만치文學道의闡明과藝術理論의最高指針이아닐수업다文藝研究家는勿論이오一般文化人도아니볼수업는훌늉한典籍임을斷言한다。

第一回配本短篇集(上) 三版發賣中
第二回配本詩歌集 三版發賣中
第三回配本短篇集(中) 再版發賣中
第四回配本隨筆紀行集 再版發賣中

—××作者의말××—

華麗한論爭 —朴英熙

『審美的活動의價値規定』이란는 이論文은 일즉이藝術에잇서서 感情과情緖와 個人問題를떠나서 너무도 現實的物質的生活의偏見으로 나려감을따려서 文學의길이窒息하게되엿든때에 그傾向을 克服하지며 孤立하기위해서 一文을 草하엿든것이다。어—文이로 當時의 華麗한論戰이 잇섯든것을으로보아서 나는 이論文의意義를 가지려고하는바이다。

論文의性格 —白鐵

어번에 내가 分擔된論文으로서 『文學의個性과 普遍性問題를傳햇스나 내論文中에서 그것이 特히自信잇는論文이란 問이아니다。다만 偶然이라도 比較的一般的인普遍的인共感을 가질만한論文이라는 意味에서 大體나는 내論文에 不過하다。 自信을못가지고하는者이다。더구나 여

═評論集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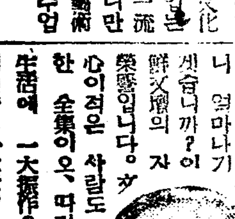
審美的活動의價値規定(外一篇)—朴英熙
文學과性格(外一篇)—俞鎭午
批評藝術論(外一篇)—金文輯
유고오의詩精神素論(外一篇)—李軒求
유다的인것과文學(外一篇)—金南天
個性과普遍性의問題—白鐵
批評文學을爲하여—金煥泰
古典文學論(外一篇)—李源朝
舊殼에서의脫出—金基鎭
藝術論—梁柱東
센치멘탈論(外一篇)—崔載瑞
希臘古瓶의高調詩—鄭寅燮

번에 論文을 擇하면서 다시自己評論의貧弱한 力量을느겻다。獨斷이七分에論理가三分！거기에 하나의主觀的인 情熱이 겨우內容의 全篇을救하고잇을뿐이다。

大好評의「評論集」

文學道의闡明 —柳致眞

現代朝鮮文人全集은근래우리文學界에서 이거니와이번第五回配本 『評論集』은一般文化人은누구나아니 好著이다內容評論家의執筆 文學道의闡明 理論의最高指針이 다。散漫한書界에 推薦하는바이다。



朝鮮文壇의集響 —[illegible]

增도 매우微微한모양이데 이제[illegible]에서 最近三十年間의 文人의作品을 모아 [illegible]이 全集[illegible] 나 얼마나기 셋습니까? 이 鮮文壇의 자 榮譽입니다。文 心이적은 사람도 한 全集이오. 따라서 朝鮮사람의 精神生活에 一大振作을 주는 巨大한 事業 이겟습니다[illegible]。

京城太平通一丁目一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四六版三六〇頁 定價一部一圓廿錢
書留送料 二十二錢
(一時拂七圓 送料本社부담)